

“문정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바닥재 교체 시급”



박지효 송파구의원 (거여1, 가락2, 문정동)

박지효 송파구의원(거여1, 가락2, 문정동)은 송파구 관내 노후놀이시설의 바닥재 개선 사업을 주문했다.

박지효 의원은 “문정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의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그러나 놀이터의 바닥재가 2013년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교체

되지 않았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닥재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주기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놀이하는 여름철 물놀이시설로도 함께 사용돼 일반 놀이터보다 바닥재의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경기도는 최근 기존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8억원을 투입해 13개 시·군, 42곳의 생활공단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했다”고 소개했다.

박지효 의원은 문정근린공원 등 관내 노후 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 실시, 물놀이시설과 겸용되는 놀이터는 노후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선 점검 대상 지정,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노후 놀이시설 바닥재 개선 사업 반영 및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